

웹소설에서 TV 드라마로의 각색에 있어 서사의 변화 - 〈내일의 으뜸〉과 〈선재 업고 튀어〉를 중심으로

노시훈*

1. 서론
2. 재초점화: 로맨스 판타지의 회귀 모티프에서 사랑의 마스터 플롯으로
3. 재강조: 구출 플롯의 보강을 통한 쌍방 구원 서사의 구현
4. 완화: 팬덤 서사의 순화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웹소설에서 TV 드라마로의 각색에 있어 서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웹소설에서 타 장르로 각색할 때 대중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웹소설 〈내일의 으뜸〉의 TV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의 각색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형식의 전환을 확인하였다. 첫째, 마니아적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웹소설은 클리셰에 충실하지만, 더욱 폭넓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TV 드라마는 보편적 플롯을 추구하므로, 이 웹소설의 로맨스 판타지 회귀 모티프는 이 TV 드라마에서 사랑의 마스터 플롯으로 '재초점화'된다. 둘째, 이 각색 작품에서는 원작의 구출 서사의 미흡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한 부분을 보강하고 극적 흥미를 높이기 위해 전통적인 구출의 마스터 플롯이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쌍방 구원 서사가 구현되는 ‘재강조’가 이루어진다. 셋째, 원작은 열성 팬덤 문화의 어두운 면까지 깊이 다루고 있어서 마니아적이지 않은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색 작품에서는 수용자의 호응을 확대하기 어려우므로 아이돌 모티프의 이야기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팬덤 서사를 순화하는 ‘완화’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와 같은 재초점화·재강조·완화 등의 형식적 변화 과정에 항시 새로운 장르적 관습이 적용되므로 웹소설에서 타 장르로 각색할 때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처럼 관습과 관련된 ‘무엇’의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밝힌 데 있다.

(주제어: 내일의 으뜸, 선재 업고 튀어, 각색, 웹소설, TV 드라마, 장르 관습)

1. 서론

2013년 네이버의 ‘웹소설’ 서비스 시작과 더불어 일반화된 용어로서 “온라인(web/app)을 통해 연재되는 장르 소설”¹⁾을 의미하는 웹소설 산업이 현재 국내에서 급속히 성장하면서 콘텐츠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국내 전체 웹소설 이용자 수는 약 587만 명으로 추정되며, 웹소설 시장 규모는 약 1조 39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²⁾ 특히 시장 규모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산한 2013년 규모 약 200억 원, 2018년 규모 약 4,000억 원에서 매우 가파르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2년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17쪽.

2) 위의 책, 34-40쪽.

게 증가³⁾한 것이기 때문에 괄목할 성장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웹소설은 한 콘텐츠를 그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를 활용하여 다른 콘텐츠로 출시하는 미디어 믹스(media mix)에 적합하여 웹툰(2020년대 부터는 웹소설과 웹툰의 연동이 일반화됨),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원작으로 활발하게 각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⁴⁾ 현재 형성되는 중인 웹소설→웹툰→영상화→관련 상품 판매의 가치사슬⁵⁾에서 가장 앞에 자리 잡고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웹소설을 각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린다 허천(Linda Hutcheon)이 설명한 바와 같이 각색이 때에 따라 매체 변화를 수반하는 “종종 다른 일련의 관습으로의 약호전환(often a transcoding into a different set of conventions)”⁶⁾이기 때문이다. 웹소설로부터 전환하고자 하는 웹툰,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은 이러한 고유의 복합적인 관습 또는 “청중이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구조화하는 역할을 하는 고유한 문법과 통사론”⁷⁾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환을 위해서는 잘라내기(cutting)와 덧붙이기(adding)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허천이 이야기 제시 방법으로 구분한 세 가지 참여 양식(mode of engagement), 즉 말하기(telling: 소설, 단편소설, 역사 서술 등), 보여주기(showing: 영화, 발레, 라디오극, 무대극, 뮤지컬, 오페라 등), 상호작용하기(interaction: 비디오 게임, 테마파크 놀이기구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각색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인 말하기(인쇄물, print)에서 보여주기(공연물,

3)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웹소설 이용자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3쪽.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앞의 책, 26-27쪽.

5)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만화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51쪽.

6) Linda Hutcheon, *A Theory of Adaptation*, 2nd ed.,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3, pp.33-34.

7) 위의 책, p.35.

performance)로의 각색을 대표하는 소설의 극화(dramatization)에서는 “묘사, 서술, 표현된 생각 등이 대사, 행동, 음향, 시각 이미지 등으로 약호 전환되어야 하며, (...) 불가피하게 주제, 등장인물, 플롯 등은 어느 정도 재강조(re-accentuation)·재초점화(refocusing)된다.”⁸⁾ 따라서 원작인 웹소설이 인기를 끌었다고 하여 이를 각색한 작품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약호 전환과 재강조·재초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웹소설의 각색에 있어 대중성 확보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허천이 각색의 이론화에 있어 나눈 육하원칙의 문제, 즉 ‘무엇’(what: 형식), ‘누가’(who: 각색자)와 ‘왜’(why: 각색자), ‘어떻게’(how: 청중), ‘어디서’(where: 맥락)와 ‘언제’(when: 맥락)의 문제 가운데 ‘무엇’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웹소설에서 TV 드라마로의 각색에 있어 서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웹소설에서 타 장르로 각색할 때 대중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TV 드라마로의 각색 사례를 다루는 것은, 웹소설과 웹툰의 연동이 일반화되어 웹툰으로의 각색 사례가 가장 많으나 연동으로 인해 원작에 충실한 각색인 경우가 흔하므로 이 사례들을 제외하면 TV 드라마로의 각색이 가장 빈번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서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주제, 등장인물, 플롯 등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그것을 형식상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8) 위의 책, p.40. 허천이 자신의 저서에서 ‘재강조’와 ‘재초점화’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글의 맥락으로 볼 때 이 용어들이 ‘원작과 다른 주제, 등장인물, 플롯 등에 특별한 중요성이나 의미를 다시 부여하기’와 ‘다시 초점 맞추기’를 뜻함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또한 허천이 언급한 용어는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재강조’, ‘재초점화’와 함께 쓰인 ‘완화’라는 용어는 ‘원작의 주제, 등장인물, 플롯 등의 강조나 초점화를 누그러뜨림’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루는 서로 다른 매체와 장르를 가로질러 전환되는 것의 공통분모, 즉 핵심”⁹⁾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웹소설을 TV 드라마로 각색한 사례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으나 분석 대상이 중국 웹소설인 경우가 많고 서사 변화 양상을 다른 경우는 드물어서 본 연구와 유사한 방향에서 이루어진 국내 기존 연구로 한혜원의 「한국 웹소설의 매체 변환과 서사 구조: 궁중 로맨스를 중심으로」(2017), 김경애의 「웹소설의 전용과 재매개 양상 연구: 『구르미 그린 달빛』의 드라마화 과정을 중심으로」(2017), 김명석의 「역사로맨스 『구르미 그린 달빛』의 서사 분석」(2019)을 들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세 연구 모두 윤이수의 웹소설 〈구르미 그린 달빛〉의 드라마화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조선 시대 궁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로맨스의 각색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다양한 하위 장르와 모티프가 결합하여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세 연구는 ‘각색할 때 대중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찰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더 커진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웹소설 〈내일의 으뜸〉을 TV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각색한 사례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이 사례가 다양한 하위 장르와 모티프가 결합한 원작이 각색을 통해 웹소설→웹툰→영상화→관련 상품 판매의 가치사슬을 거치며 대중성 확보에 크게 성공한 대표적인 콘텐츠 사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콘텐츠의 차별성은 각색 드라마로 시청자의 큰 관심을 받게 되자 원작 웹소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될 정도로 대중적 성공을 거둔 각색 콘텐츠라는 데 있다.

TV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원작인 김빵의 웹소설 〈내일의 으뜸〉은

9) 위의 책, p.10.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카카오페이지에 104화(본편 72화, 에필로그 7화, 번외 4화, 외전 2화, 특별 외전 5화, IF 외전 14화)에 걸쳐 연재되었고, 2020년에 종이책(1권)과 전자책(본편 2권, 외전 1권)으로 출판되었다. 종이책을 기준으로 이 웹소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프롤로그

01: 첫 번째 시간 여행

02: 두 번째 시간 여행

03: 잃어버린 세계

04: 꿈에서 본 거리

05: 오늘의 으뜸

에필로그: 영원의 기록

번외: 여행 밖의 사람들

외전: 열일곱, 봄

이 웹소설은 2021년부터 등등의 그림으로 81화의 웹툰 〈내일의 으뜸〉으로 만들어져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되었으며, 2024년에는 16화의 TV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제작되어 2024년 4월 8일부터 2024년 5월 28일까지 tvN 채널에서 방영되었다.

위와 같은 고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로맨스 판타지 회귀물인 원작이 사랑의 마스터 플롯을 주 플롯으로 한 각색 작품으로 재초점화되는 이유를 조명하고, 3장에서 구출 플롯의 보강을 통해 이루어지는 쌍방 구원 서사의 구현이라는 재강조 과정을 분석한 뒤, 5장에서 팬덤 서사의 순화라는 각색상의 완화 양상에 관해 연구할 것이다.

2. 재초점화: 로맨스 판타지의 회귀 모티프에서 사랑의 마스터 플롯으로

현재 <내일의 으뜸>이 서비스되고 있는 카카오페이지에 따르면 이 웹소설의 장르는 ‘로맨스’이며, 키워드는 ‘#타임슬립’, ‘#학원물’, ‘#재회물’, ‘#연예계물’, ‘#순정남’, ‘#평범녀’이다.¹⁰⁾ 그런데 <내일의 으뜸>은 “연애 이야기, 연애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장르”라는 점에서 ‘로맨스’ 장르에 속하지만, ‘타임슬립’을 다루고 있어서 “마법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주요한 플롯의 요소, 주제, 배경으로 삼는 픽션 장르”인 ‘판타지’ 장르에도 속하기 때문에, 이 웹소설의 장르는 “로맨스와 판타지 장르 결합”인 ‘로판(로맨스 판타지)’ 장르로 보아야 한다.¹¹⁾ 또한 이 웹소설은 ‘회빙환’(회귀·빙의·환생) 가운데 “특정한 과거에 놓인 개인의 육체에 현재의 개인의 의식이 침투하는 것”¹²⁾을 뜻하는 ‘회귀’의 모티프를 다루고 있는데, 회빙환이 로맨스 판타지의 클리셰(cliché)라는 점도 그러한 장르 분류의 타당성을 더해준다. 클리셰란 프랑스어로 ‘상투적인 표현’이나 ‘진부한 생각’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허천이 언급한 ‘관습’에 가깝다.

웹소설은 작가와 독자가 ‘장르적 기호’를 공유하며 제작·소비되므로 각 장르의 고유한 클리셰에 충실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¹³⁾ <내일의 으뜸>도 웹소설의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히 회귀물로서 이 웹소설은 전

10) 김빵, 『내일의 으뜸』, 전자책, 다향, 2020, <https://page.kakao.com/content/55921902>. (검색일: 2024.12.09.)

11) 한국콘텐츠진흥원, 『웹소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29쪽.

12)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280쪽.

1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앞의 책, 20쪽.

개 과정에 따른 회귀 모티프의 다음과 같은 특성에 대부분 잘 들어맞는다.

- 1) 상실: 대부분의 회귀 모티프는 상실에서 시작된다.
- 2) 회귀 사실의 노출: 회귀 모티프를 다루는 소설은 대부분 1-3화 안에 자신의 회귀 사실을 밝히고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힌다.
- 3) 상호 연관: 과거의 지식이 지속적으로 현재(회귀 후)의 삶에 관여한다.
- 4) 주인공이 죽은 후 주변 인물들의 상태 설명: 회귀 전 삶에서 주인공이 죽은 후, 주인공과 관계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 5) 행복한 미래: 대부분 이 미래[회귀 전 주인공이 죽는 시점 이후 주인공이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고민은 깊게 다루어지지 않고, 에필로그 형태로 행복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¹⁴⁾

다음은 <내일의 으뜸>에서 위의 전개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 1)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인 임솔은 아이돌 그룹 '감자전'의 제5의 멤버인 류선재의 덕후(마니아)인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선재가 사망한다.
- 2) 선재의 사인이 감기약과 수면제 동시 복용으로 인한 쇼크사로 알려지고(1화), 솔은 우연히 줬게 된 회중시계로 6년 전의 고등학생으로 회귀한다(2화).
- 3) 솔은 선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불면증의 원인이 감자전의 일부 팬들의 비난이라고 생각하여 회귀 후 선재가 감자전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잠이 오는 지루한 책들을 선물한다.

14) 안상원, 앞의 글, 289-291쪽.

- 4) 선재의 빈소에서 백인혁이 우는 등 감자전 멤버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 5) 에필로그에서 솔은 선재와 결혼을 생각하는 연인이 되고, 감자전 구성원들과 캠핑할 정도로 성덕(성공한 덕후)이 되며, 선재는 불면증 없이 깊은 잠을 잔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1)의 '상실'이 주인공인 솔의 죽음이 아니라 선재의 죽음이며 죽음의 원인이 작은 실수나 성격적인 미숙함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 전개에서 벗어나지만,¹⁵⁾ 전체적으로는 이 웹소설이 회귀물의 특성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웹소설 〈내일의 으뜸〉을 TV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각색하면서 '회귀물', '학원물', '연예계물' 등과 같이 웹소설의 인기 있는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서사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장르들의 인기는 카카오페이지에서 원작의 키워드인 '타임슬립', '학원물', '연예계물'로 검색했을 때 각각 474개, 473개, 191개의 웹소설이 검색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장르 관련 키워드는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IMDb(Internet Movie Database)가 제시한 〈선재 업고 튀어(Lovely Runner)〉의 플롯 키워드(Plot keywords) 목록¹⁶⁾에 다시 나타난다(굵은 글씨는 겹치는 주요 키워드로 본 연구에서 강조). 이 목록에서 키워드 '시간 이동'은 타임슬립, '학교 배경'은 학원물, '명성', '야심 있는 배우', '가수 남성 주연'은 '연예계물'과 일치한다. 원작에 충실한 각색 웹툰 〈내일의 으뜸〉의 카카오페이지 키워드 목록¹⁷⁾에서는 '타임슬립'만이 빠져있는

15) 위의 글, 289-290쪽.

16) IMDb, "Lovely Runner", <https://www.imdb.com/title/tt31324295/keywords/>. (검색일: 2024.12.09.)

17) 등등, 〈내일의 으뜸〉, 연담, 2021, <https://page.kakao.com/content/57880829>. (검색일: 2024.12.09.)

데, 이 웹툰에서도 타임슬립 서사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키워드의 단순 누락이라고 본다면 인기 있는 형식이 웹툰 각색에서도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재 업고 튀어>는 두 전작과 마찬가지로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웹소설의 형식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형식상의 변화와 관련된 회귀의 모티프(#타임슬립)와 팬덤(fandom) 서사(#연예계물)에 주목하고자 한다.

작품	키워드
웹소설 <내일의 으뜸> (카카오페이지)	#타임슬립, #학원물, #재희물, #연예계물, #순정남, #평범녀
웹툰 <내일의 으뜸> (카카오페이지)	#현대로맨스, #재희물, #학원물, #작사랑, #달달물, #로맨틱코미디, #드라마, #성장물, #연예계물
TV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IMDb)	한국 드라마, 시간 여행 공상 과학, k 드라마, 시간 변경, 시간 여행, 두 단어 제목(영어 제목), 명성, 학교 배경, 헌신적인 여성 주연, 야심 있는 배우, 가수 남성 주연, 우산, 시간 이동(time slip), 인생의 단면, 영화화된 한국 문학, 실사 각색(live action adaptation), 비선형 타임라인, 나비 효과, 기분 좋은 로맨스, 영화화된 문학, 웹소설 기반, 로맨틱코미디, 비밀스러운 열중, 열정적인 남성 주연, 결단력 있는 여성 주연, 비선형 시간 틀, 첫눈에 반하는 사랑, 청춘, 비선형 내러티브, 소설 기반

<표1> <내일의 으뜸>(웹소설·웹툰)과 <선재 업고 튀어>(TV 드라마)의 키워드 비교

<선재 업고 튀어>에서는 <내일의 으뜸>에서처럼 회귀 모티프의 특성이 뚜렷하게 다시 나타난다. 원작처럼 각색 작품에서도 1) 1화에서 회귀 모티프가 선재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고(상실), 2) 역시 1화에서 솔이 전자시계

에 의해 고등학생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회귀 사실의 노출), 3) 2화에서 선재가 수영시합에서 어깨를 다쳐 수영을 그만두고 밴드 그룹 이클립스의 멤버가 되었음을 기억한 솔이 선재가 시합에 나가지 못하게 막고(상호 연관), 4) 4화에서 선재의 빈소에서 아버지와 이클립스 멤버들이 오열하며(주인공이 죽은 후 주변 인물들의 상태 설명), 5) 마지막 16화에서 솔이 선재의 프리포즈를 받아들이고 함께 결혼식을 상상하면서 드라마가 마무리된다(행복한 미래). 1화에서 선재가 호텔 수영장에 추락하여 죽기 전에 초인종이 울리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타살 가능성을 암시하는 등의 변형이 있으나 원작의 회귀 모티프가 대체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재 업고 튀어〉에서는 다른 요소들의 변화를 통해 이야기의 초점이 회귀 모티프로부터 다른 플롯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다.

〈선재 업고 튀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각색상의 변화는 등장인물의 변화인데, 이는 다음 〈그림 1〉의 인물관계도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주요 인물로 원작에는 없는 ‘김태성’이 추가되고, 그의 아버지인 김형사가 등장한다. 솔이네 가족에서는 원작에 있던 아버지가 없는 대신 없던 할머니와 오빠 임금(타임슬립으로 달라진 현재에서 솔의 친구인 이현주와 결혼한다)이 추가되고, 선재네 가족에서는 원작에 있던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작의 아이돌 그룹 ‘감자전’이 각색 작품에서는 밴드 그룹 ‘이클립스’가 되는데, 멤버 수는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고, 선재는 원작과 달리 다른 멤버와 함께 데뷔한다. 마지막으로, 〈그림1〉의 인물관계도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원작에 없던 연쇄살인마 택시 기사 김영수가 등장한다.



〈그림2〉 〈선재 업고 튀어〉의 인물관계도

(출처: tvN, 〈선재 업고 튀어〉 홈페이지, <https://tvn.cjenm.com/ko/Lovely-Runner/>)

위와 같은 등장인물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웹소설이 마니아적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여 작가와 독자의 장르적 기호 공유를 중요시하므로 클리셰에 충실해야 하지만, TV 드라마는 더욱 폭넓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익숙한 보편적 플롯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야기의 전환 과정에서 더욱 일반적인 플롯 특성으로 재초점화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이에 따라 <선재 업고 튀어>에서 회귀의 모티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무엇보다 '사랑'(love)의 서사를 크게 강화한다. 이는 로널드 토비야스(Ronald B. Tobias)가 그의 『20가지 마스터 플롯(과 그것을 만드는 방법)[20 Master Plots (and How to Build Them)]』에서 제시한 '사랑'(love)의 마스터 플롯에 대한 다음의 점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1) 사랑에 대한 전망은 언제나 큰 장애물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 2) 연인들은 대개 어떤 면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사회적 계급 차이, 신체적 비동등성 등)
- 3) 장애물을 해결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거의 항상 좌절된다.
- 4) 한 연인이 다른 연인보다 사랑을 추구하는 데 더 적극적이다(성별과 관계없음).
- 5) 사랑 이야기는 반드시 행복한 결말로 끝날 필요는 없다.
- 6) 주인공을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
- 7) 감정은 사랑에 대한 글을 쓸 때 중요한 요소이다.
- 8) 글에서 감정과 감상주의의 역할을 이해하고 어느 것이 이야기에 더 적합한지 결정해야 한다.
- 9) 연인에게 사랑의 시련을 최대한으로 겪게 한다.¹⁸⁾

위의 점검표를 따라 <내일의 으뜸>과 <선재 업고 튀어>를 검토해보면 원작과 각색 작품 모두는 5)의 요소(슬픈 결말)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위의 서사적 관습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선재 업고 튀어>가 <내일의 으뜸>보다 위의 관습에 대한 충실성의 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전자에서 사랑의 마스터 플롯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원작에서는 사랑의 장애물이 선재의 '죽음' 외에 별다른 것이 없어서 긴장·갈등이 크

18) Ronald B. Tobias, *20 Master Plots (and How to Build Them)*, Cincinnati: Writer's Digest Books, 1993, pp.180-181.

지 않다. 따라서 각색 작품에서는 ‘죽음’ 외에 ‘연적’, ‘연쇄살인마’ 등으로 장애물을 다양화하는데, 원작에 없던 태성(5화에서 선재와 질투하는 사이가 되어 술을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과 영수(5화부터 등장하여 술과 선재의 목숨을 위협한다)의 등장은 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2) 원작에서는 연인들이 ‘연예인과 팬’(일종의 사회적 계급 차이)이라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여주지만, 각색 작품에서는 1화의 시작에서 술이 자신의 하반신 마비를 비판하는 장애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신체적 비동등성)이라는 차이가 추가된다. 6) 원작에서 술과 선재의 사랑의 원동력은 ‘연예인과 팬’의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각색 작품에서는 술의 입장에서 ‘삶의 의지를 되찾게 해준 [선재의] 위로’(1화), 선재의 입장에서 ‘[술에 대한] 첫눈에 반하는 사랑’(2화)이 추가되어 두 주인공의 행동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든다. 9) 원작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일어난 선재의 죽음 외에는 큰 시련이 없으나, 각색 작품에서는 술과 선재가 자주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부닥쳐서 시련이 최대한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웹소설 <내일의 으뜸>에서 TV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각색될 때 서사적 차원에서 초점이 로맨스 판타지의 회귀 모티프에서 사랑의 마스터 플롯으로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로맨스 판타지에서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차원 이동, 환생, 회귀 등의 모티프를 통해 주인공이 권력을 잡거나, 가족을 구하거나, 자기 잘못을 만회하고 삶을 복구하고자 애쓰는 이야기가 중요한데,¹⁹⁾ 반대로 <선재 업고 튀어>에서는 그와 같은 초점의 이동을 통해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19) 안상원, 「한국 웹소설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서사적 특성 연구」, 『인문콘텐츠』 제55호, 인문콘텐츠학회, 2019, 225쪽.

3. 재강조: 구출 플롯의 보강을 통한 쌍방 구원 서사의 구현

〈선재 업고 튀어〉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서사적 변화로 주 플롯인 사랑의 마스터 플롯의 강화뿐만 아니라, 이와 구별되는 다른 유형의 플롯인 ‘구출’(rescue)의 마스터 플롯의 보강을 들 수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바처럼 〈내일의 으뜸〉에서는 선재의 ‘죽음’ 외에는 별다른 사랑의 장애물이나 사랑의 시련이 없으므로 〈선재 업고 튀어〉에서는 긴장·갈등을 키우고 시련을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해 사랑의 플롯을 강화함과 아울러 구출의 플롯을 보강한다. 토비아스는 『20가지 마스터 플롯』에서 이 플롯에 대한 점검표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구출의 플롯은 성격 묘사의 발전보다는 행동에 더 많이 의존한다.
- 2) 등장인물 삼각형은 영웅, 악당, 피해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영웅은 피해자를 악당으로부터 구출해야 한다.
- 3) 구출 플롯의 도덕적 주장은 흑백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
- 4) 이야기의 초점은 악당을 쫓는 영웅에 맞춰져야 한다.
- 5) 영웅은 세상으로 나가 악당을 쫓으며, 보통 악당의 세력권에서 악당과 싸워야 한다.
- 6) 영웅은 악당과의 관계로 정의되어야 한다.
- 7) 영웅이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것을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 반동 인물(antagonist)을 활용해야 한다.
- 8) 반동 인물이 영웅의 진행을 지속해서 방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9)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세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약하고 주로 영웅이 적대자와 맞서도록 강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 10) 이별, 추적, 대결 및 재결합이라는 세 가지 극적인 단계를 전개한다.²⁰⁾

20) 위의 책, p.92.

위의 점검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출의 플롯은 주동 인물(protagonist)인 영웅, 악당, 피해자로 구성된다. 이는 조르주 폴티(Georges Polti)가 구출(deliverance)의 플롯의 구성요소로 든 ‘구출자’(Rescuer), ‘위협하는 자’(Threatener), ‘불운한 자’(Unfortunate)²¹⁾와 이름만 다를 뿐 일치하는데, 폴티가 각 요소에 부여한 이름이 그 기능을 더 잘 알려준다. <선재 업고 튀어>에서 영웅(구출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선재이며 피해자(불운한 자)는 솔이다. 그런데 <내일의 으뜸>에는 악당(위협하는 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어 그 추가가 필요하므로 각색 작품에는 영수가 등장한다. 이 TV 드라마는 이러한 등장인물 구도 아래에서 전체적으로 위의 서사적 관습을 충실히 따른다. 이 구출 서사에서는 1) 선재의 행동이 플롯을 끌어가고, 3) 선악의 구별이 뚜렷하고, 4) 이야기의 초점이 영수를 쫓는 선재에 맞춰지고, 5) 선재가 주로 영수의 세력권(범행 장소)에서 그와 싸우고, 7) 반동 인물인 영수가 선재의 사랑의 대상인 솔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고, 8) 영수가 선재의 구출 행위를 끊임없이 방해하며, 10) 선재가 이별, 추적, 대결 및 재결합이라는 세 가지 극적인 단계를 거쳐 솔을 구출한다. 위의 관습과 다른 점은 9) 피해자인 솔이 ‘결단력 있는 여성 주연’이기 때문에 세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없어서 단순히 적대자와 맞서도록 강요하는 장치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솔은 납치 전에 영수를 추적하거나 유인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런데 <선재 업고 튀어>에는 원작에서부터 이어진 또 다른 구출 서사가 있는데, 바로 솔이 선재를 죽음으로부터 구출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솔이 영웅이 되고 선재가 피해자가 되는데, 원작대로라면 악당에 해당하는 등장인물이 없고 감기약과 수면제라는 ‘약물’과 우울증을 가

21) Georges Polti, *The Thirty-Six Dramatic Situations*, translated by Lucile Ray, Franklin: James Knapp Reeve, 1924, p.92.

저온 극성팬들의 ‘비난’이 그 요소를 대신한다. 따라서 〈선재 업고 튀어〉에서는 술이 선재를 구출하기 위해 시간 여행하는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죽음의 원인을 살인으로 바꿀 뿐 아니라, 전통적인 구출의 마스터 플롯을 가져와 그 관습에 따라 또 다른 구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는 원작의 구출 서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행동에 더 많이 의존’하는 이 플롯의 관습을 따름으로써 극적 흥미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선재 업고 튀어〉는 구출의 마스터 플롯을 추가하여 두 개의 구출 이야기를 만듦으로써 원작의 이야기를 ‘일방 구원 서사’에서 ‘쌍방 구원 서사’로 변모시킨다. 원작인 〈내일의 으뜸〉의 구출 이야기가 일방 구원 서사라는 것은, 그 주동 인물인 술의 언급과 선재의 동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작의 에필로그에서 술은 술에 취해 선재에게 보낸 메시지의 마지막에 “너의 구원자가”²²⁾라고 써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선재는 이에 대해 술의 연락처 이름을 “나의 구원 술☆”²³⁾로 바꿨음을 알림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인정한다. 선재는 그 이전의 이야기에서 선물 등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반드시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²⁴⁾ 구원에 있어서는 결국 상호적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이었던 관계가 〈선재 업고 튀어〉에서는 술뿐만 아니라 선재도 연인의 구출자가 됨으로써 상호적 관계가 된다.

‘쌍방 구원 서사’는 두 등장인물이 서로의 상처나 결핍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도움으로써 서로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뜻하는데, 아직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나(현재 이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찾을 수 없다) ‘회빙환’처럼 웹소설 등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선재 업고 튀

22) 김빵, 『내일의 으뜸』, 다향, 2020, p.546.

23) 위의 책, 547쪽.

24) 위의 책, 170-171, 191, 223-224쪽.

어)에서는 그 이야기가 쌍방 구원 서사가 되게 하려고 선재가 19세에 사고로 견지 못하게 된 34세의 솔이 삶의 의지를 되찾게 하고, 선재가 사망하자 15년 전으로 회귀한 솔이 계속해서 자신을 구하려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원작의 이야기를 수정한다. 또한 원작에 등장하는 솔의 아버지(지방에서 일해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25)와 선재의 어머니(감자탕 식당 운영)26)를 등장인물에서 뺀 것이나 선재가 원작과 달리 수영선수였다가 부상으로 그만두는 설정도 서로 극복하도록 도와야 할 상처나 결핍이 원작에서 충분하지 않았던 때문일 수 있다. 솔 아버지의 부재가 결핍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쌍방 구원 서사를 위한 설정이라는 것은 5화에서 선재가 솔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쌍방 구원을 통해 성장을 이룬 예로는 마지막 16화에서 솔이 아이돌 스타 선재의 열성 팬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꿈꾸었던 영화감독이 된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선재 업고 튀어>는 구출 플롯을 보강하는 재강조 과정을 통해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쌍방 구원 서사를 구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4. 완화: 팬덤 서사의 순화

웹소설 <내일의 으뜸>의 TV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의 각색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재초점화·재강조와는 다른 각색 양상인 ‘완화’를 볼 수

25) 위의 책, 31쪽.

26) 위의 책, 76쪽.

있는데, 이는 ‘팬덤 서사의 순화’이다. 재초점화와 재강조가 각색할 때 특정 요소에 무게를 두는 것을 뜻한다면, 완화는 그와 반대로 특정 요소에 둔 무게를 더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팬덤 서사’는 ‘팬 활동의 하나로서 팬이 아마추어 자격으로 기존 픽션에 기반하여 만든 픽션’을 뜻하는 ‘팬 픽션(fan fiction)’이 아니라 ‘팬덤과 팬 활동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팬 픽션에서도 연예인과 팬을 사랑의 관계로 설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므로 <선재 업고 튀어>에서 연예인과 팬의 관계가 아니라 연인 사이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팬덤 서사의 변화를 조명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보다는 팬덤 서사 자체의 관습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그러한 조명은 생략하였다.

<내일의 으뜸>이 연예인 팬덤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은, 이 웹소설의 프롤로그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난다. 프롤로그는 각기 댄스 열풍을 일으킨 아이돌 그룹 ‘감자전’의 성공의 비결이 얼굴에 있었고 그 인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하나의 커다란 팬덤을 이루고 있었다”²⁷⁾는 솔의 소개로 시작하여, 감자전에 뒤늦게 제5의 멤버로 합류하여 기존 멤버 팬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선재에 대해 “바로 내 입덕 멤버이자 최고 으뜸이이다”²⁸⁾라는 솔의 고백으로 끝나는데, 여기에서 ‘입덕’이란 어떤 인물·분야에 깊이 빠져 덕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뜻하므로 앞으로의 이야기가 ‘솔이라는 아이돌 덕후의 선재에 대한 덕질[어떤 인물·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해서 관련된 것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 기록]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이어지는 장들에서 선재가 팬들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솔이 진정한 팬으로서 그를 응원하며, 그의 죽음 뒤에 과거로 회귀하여 그를 구하려

27) 위의 책, 9쪽.

28) 위의 책, 11쪽.

할 때도 ‘팬심’ 또는 ‘덕심’(어떤 대상에 대한 덕후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장의 ‘첫 번째 시간 여행’에서 솔은 선재가 자신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덕후의 마음”²⁹⁾을 표현하며, 2장의 ‘두 번째 시간 여행’에서 선재와 함께 노래방에 간 솔은 자신이 이 아이돌 스타와 함께 보낸 “너무나 과하고 어마어마한 하루”³⁰⁾에 팬으로서 감동한다. 솔이 <내일의 으뜸>에서 그의 열성팬이 된 것은 그의 외모³¹⁾와 노래³²⁾ 때문인데, 특히 그녀는 “네 노래가 늘 내게 힘이 됐어”³³⁾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덕질의 출발점이 무엇보다 가수인 그의 노래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렇게 선재의 열성팬이 된 솔은 감자전의 다른 멤버인 인혁, 서윤재, 우현성에게 선재를 부탁하기까지 하는데,³⁴⁾ 그러한 열성은 선재가 불면증을 이겨내도록 돕고(“불면을 너로 버텼어.”³⁵⁾), 그가 활동을 성공적으로 지속하여 그의 합류를 반대했던 팬클럽 ‘감자전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한다.³⁶⁾ <내일의 으뜸>이 이처럼 팬덤 문화를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것은 ‘덕후’, ‘성덕’, ‘입덕’ 외에, ‘덕질 대상을 직접 만나기 어렵다’는 뜻을 가진 ‘덕계못’(덕후는 계를 못 탄다)이라는 덕후 관련 용어에 잘 나타나 있다.³⁷⁾

그러나 <내일의 으뜸>은 팬덤 문화의 어두운 측면 또한 드러내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재는 감자전에 뒤늦게 제5의 멤버로 합류하

29) 위의 책, 70쪽.

30) 위의 책, 165-166쪽.

31) 위의 책, 41-42, 64, 467쪽.

32) 위의 책, 159-160, 207-208, 272, 445쪽.

33) 위의 책, 27쪽.

34) 위의 책, 114, 133, 198쪽.

35) 위의 책, 376쪽.

36) 위의 책, 506쪽.

37) 위의 책, 51, 134쪽.

여 기존 멤버 팬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는데(두 번째 시간 여행 이후에도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아서 선재는 계속 욕을 먹는다³⁸⁾), 심지어 그의 죽음에 대해 일부 팬들은 악성 댓글을 달고 조롱하기까지 한다.³⁹⁾ 그가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는 주로 인혁의 팬들인 ‘감자전쟁’, ‘감자전투’의 팬들이 그가 인혁 등 다른 멤버의 자리를 뺏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⁴⁰⁾ 술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불면증의 원인이 바로 이 감자전쟁과 감자전투의 팬들이라고 본다.⁴¹⁾ 그들은 선재를 ‘사냥’⁴²⁾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팬덤 내에서도 선재 팬의 팬 사인회 후기에 선재에 대한 악담을 달고⁴³⁾ 팬 카페 쪽지에 악성 게시글을 올렸기 때문에⁴⁴⁾ 술은 인혁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회귀 후 첫 만남부터 그를 미워하며,⁴⁵⁾ 감자전의 팬인 이웃이 감자전쟁, 감자전투일까 봐 걱정하기까지 한다.⁴⁶⁾

〈내일의 으뜸〉은 아이돌인 선재와 그의 팬인 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모티프의 웹소설(#연예계물)로 분류되지만, 동류의 웹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① 아이돌이 주인공 캐릭터로 등장하고, ② 아이돌 활동이 갈등 사건으로 전개되며 ③ 팬덤이 주된 조연 캐릭터로 기능하는 이야기 구조”⁴⁷⁾를 변형하여 팬이 주동 인물

38) 위의 책, 255쪽.

39) 위의 책, 18-19쪽.

40) 위의 책, 25-26, 68쪽.

41) 위의 책, 36, 107쪽.

42) 위의 책, 206쪽.

43) 위의 책, 45쪽.

44) 위의 책, 251쪽.

45) 위의 책, 25-26쪽.

46) 위의 책, 391쪽.

47) 정은혜, 「한국 웹소설의 아이돌 모티프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57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3, 249쪽.

캐릭터가 되게 함으로써 그 장르에서 새로운 방향의 서사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또한 “팬덤 캐릭터는 아이돌과 마찬가지로 1명의 특정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며, 팬덤 명으로 지시되는 익명의 다수들, 즉 집단의 총체로 존재”⁴⁸⁾하는데, <내일의 으뜸>에서는 솔이 어느 집단에 속하지 않고 단독으로 등장하여 “해당 아이돌이 겪고 있는 사건과 갈등에 관한 지지자이자 비판자”⁴⁹⁾에 그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아이돌이 처한 위험을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아이돌의 팬 경험이 있는 독자의 감정 이입을 끌어낸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웹소설은 열성 팬덤 문화의 명과 함께 암을 깊이 다루고 있어서 마니아적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웹소설에서는 그것이 독자 유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더욱 폭넓은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TV 드라마에서는 수용자의 호응을 확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재 업고 튀어>로의 각색에서는 아이돌 모티프의 이야기 틀을 그대로 유지(그 대표적 예로는 1화와 7화의 공연 관람 에피소드를 들 수 있다)하는 동시에 팬덤 서사를 순화하는 선택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솔이 선재의 팬이 된 이유는 <내일의 으뜸>에서는 그의 외모와 노래 때문인데, <선재 업고 튀어>에서는 하반신 마비를 비관하여 자살하려던 솔에게 ‘삶의 의지를 되찾게 해준 선재의 위로’ 때문으로 바뀐다. 둘째, 공연장에서 이클립스의 다른 멤버인 인혁의 팬들이 선재를 비난하는 소리를 솔이 멀리서 듣고 다른 동료 팬과 이를 반박하기도 하고(1화), 선재가 죽은 뒤 소속사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선재가 루머와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렸음을 알리기도 하지만(4화), 인혁 팬들이 악플 테러를 해서 선재가 우울증에 걸리게 했다고 솔이 인혁의 떡살을 잡고 따지는 것이 상상으로 끝나고(3화), 이후 그 팬들이 선재를 비난하는 장면이나 솔이 그들과 대립 또는

48) 위의 글, 256쪽.

49) 위의 글, 256쪽.

충돌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원작보다 그 서사의 강도가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원작의 감자전 멤버 5명이 각색 작품의 이클립스 멤버 4명으로 줄어들고 인혁 외에는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데다 팬덤 활동은 거의 솔의 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제한되어 아이돌 모티프 자체가 매우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재 업고 튀어〉가 팬덤 서사의 순화라는 원화 과정을 통해 각색상의 재강조·재초점화를 보충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웹소설에서 TV 드라마로의 각색에 있어 서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웹소설에서 타 장르로 각색할 때 대중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고찰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웹소설 〈내일의 으뜸〉의 TV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의 각색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형식의 전환을 확인하였다. 첫째, 마니아적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웹소설은 클리셰에 충실하지만, 더욱 폭넓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TV 드라마는 보편적 플롯을 추구하므로, 이 웹소설의 로맨스 판타지 회귀 모티프는 이 TV 드라마에서 사랑의 마스터 플롯으로 ‘재초점화’된다. 둘째, 이 각색 작품에서는 원작의 구출 서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극적 흥미를 높이기 위해 전통적인 구출의 마스터 플롯이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쌍방 구원 서사가 구현되는 ‘재강조’가 이루어진다. 셋째, 원작은 열성 팬덤 문화의 어두운 면까지 깊이 다루고 있어서 마니아적이지 않은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색 작품에서는 수용자의 호응을 확대하기 어려

우므로 아이돌 모티프의 이야기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팬덤 서사를 순화하는 ‘완화’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와 같은 재초점화·재강조·완화 등의 형식적 변화 과정에 항시 새로운 장르적 관습이 적용되므로 웹소설에서 타 장르로 각색할 때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처럼 관습과 관련된 ‘무엇’의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밝힌 데 있다.

영국 웹사이트 NME(New Musical Express)는 「2024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 10선(The 10 best Korean dramas of 2024)」에서 〈선재 업고 튀어〉를 2위로 뽑았고,⁵⁰⁾ 미국 주간지 『타임(Time)』은 「2024년 최고의 K-드라마 10선(The 10 Best K-Dramas of 2024)」에서 이 TV 드라마를 1위로 선정하였다.⁵¹⁾ 특히 NME는 이 드라마를 2위로 뽑은 이유로 “시간 여행은 올해 K-드라마의 공통된 주제였지만, 〈선재 업고 튀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한 등장인물과 모든 결말에서 펼쳐지는 서사적 커브볼을 통해 클리셰를 균형 있게 조절했다”⁵²⁾는 점을 들면서 각색에 있어 서사적 변화를 통해 회귀의 모티프의 진부함을 피할 수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NME는 “〈선재 업고 튀어〉는 팬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비극적인 운명으로부터 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로 끝났다”⁵³⁾라고 분석하면서 각색에 있어 아이돌 모티프에도 변화를 가함으로써 보편성을 얻을 수 있었음을 역시 시사하였다. 이는 각색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로 다른 매

50) NME. “The 10 best Korean dramas of 2024”, <https://www.nme.com/lists/end-of-year/best-korean-dramas-2024-3818944>. (검색일: 2024.12.09.)

51) Time. “The 10 Best K-Dramas of 2024”, <https://time.com/7201080/best-k-dramas-2024>. (검색일: 2024.12.09.)

52) NME. 앞의 글.

53) NME. 앞의 글.

체·장르의 서로 다른 관습·문법·통사론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형식의 전환을 통해 웹소설이 타 장르의 매력적인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뽕, 『내일의 으뜸』, 다향, 2020.
_____, 『내일의 으뜸』, 전자책, 다향, 2020, <https://page.kakao.com/content/55921902>. (검색일: 2024.12.09.)
등등, <내일의 으뜸>, 연담, 2021, <https://page.kakao.com/content/57880829>.
(검색일: 2024.12.09.)
CJ ENM, <선재 업고 튀어>, tvN, 2024, <https://www.tving.com/contents/P001754312>. (검색일: 2024.12.09.)

2. 논문과 단행본

- 김경애, 「웹소설의 전용과 재매개 양상 연구: 『구르미 그린 달빛』의 드라마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7집(21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417-439쪽.
김명석, 「역사로맨스 『구르미 그린 달빛』의 서사 분석」, 『인문사회 21』 제10권 4호, 인문사회 21, 2019, 1435-1450쪽.
안상원, 「한국 웹소설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서사적 특성 연구」, 『인문콘텐츠』 제55호, 인문콘텐츠학회, 2019, 219-234쪽.
_____,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279-307쪽.
정은혜, 「한국 웹소설의 아이돌 모티프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57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3, 247-266쪽.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2년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한국콘텐츠진흥원, 『스몰 콘텐츠 웹소설의 빅 플랫폼 전략』, 코카포커스 16-08호(통권 104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_____, 『IP 비즈니스 기반의 웹소설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_2018.

- _____, 『2020 웹소설 이용자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 _____, 『웹소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 _____, 『2023 만화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 한혜원, 「한국 웹소설의 매체 변환과 서사 구조: 궁중 로맨스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91집, 어문연구학회, 2017, 263-291쪽.
- Hutcheon, Linda, *A Theory of Adaptation*, 2nd ed.,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3.
- Polti, Georges, *The Thirty-Six Dramatic Situations*, translated by Lucile Ray, Franklin: James Knapp Reeve, 1924.
- Tobias, Ronald B., *20 Master Plots (and How to Build Them)*, Cincinnati: Writer's Digest Books, 1993.

3. 기타자료

- tvN, 〈선재 업고 튀어〉 홈페이지, <https://tvn.cjnm.com/ko/Lovely-Runner>. (검색일: 2024.12.09.)
- IMDb, “Lovely Runner”, <https://www.imdb.com/title/tt31324295>. (검색일: 2024.12.09.)
- NME. “The 10 best Korean dramas of 2024”, <https://www.nme.com/lists/end-of-year/best-korean-dramas-2024-3818944>. (검색일: 2024.12.09.)
- Time, “The 10 Best K-Dramas of 2024”, <https://time.com/7201080/best-k-dramas-2024>. (검색일: 2024.12.09.)

Abstract

Narrative Changes in Adaptations from Web Novels to TV Dramas - Focusing on *Tomorrow's #1* and *Lovely Runner*

Noh, Shi-Hun(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rrative changes in the adaptation of web novels to TV dramas, and to examine what should be considered for effective adaptation of web novels to other genres.

To this end, the case of the adaptation of the web novel *Tomorrow's #1* to the TV drama *Lovely Runner* was analyzed, and the following formal changes were confirmed as a result. First, while web novels targeting a group of enthusiastic readers are faithful to clichés, TV dramas targeting a wider audience pursue universal plots, so the romance fantasy regression motif of this web novel is 'refocused' on the master plot of love in this TV drama. Second, in this adaptation, the traditional master plot of rescue is introduced to supplement the insufficient parts of the original rescue narrative and increase dramatic interest, thereby 're-accentuating' the realization of a mutual salvation narrative. Third, the original work deeply deals with the dark side of fandom culture, so it is difficult to expand the audience's response in an adaptation targeting a non-maniac audience, so the idol motif story frame is maintained while the fandom narrative is purified and 'soften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revealing, through examples, that new genre conventions are always applied in the formal change process of refocusing, re-accentuating, and softening, and thus, in order to effectively adapt web novels to other genres, the problem of 'what' related to conventions must be considered in advance.

웹소설에서 TV 드라마로의 각색에 있어 서사의 변화 / 노시훈 317

(Keywords: Tomorrow's #1, Lovely Runner, adaptation, web novel, TV drama, genre conventions)

■ 논문투고일 :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 2025년 02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5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5년 02월 17일